

# 한국 축구 중심으로 '우뚝'

## EPL 정복·월드컵·아시안게임까지... 올 손흥민의 도전 '막 올라'

1992년생 만 26세의 그리 많지 않은 나이로 한국 축구의 중심으로 우뚝 선 손흥민(토트넘)에게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어느 해보다 중요하게 다가온다.

“뚝”을 위해 전 세계 축구 도사들이 모여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입지를 다져야 하고 생애 두 번째 월드컵을 통해 4년 전 아픔을 씻어야 한다.

가을에는 향후 선수 생활의 향방을 좌우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의 인생을 건 도전이 막을 올렸다.



### △ 첫 번째 과제는 EPL 정복

2015년 8월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EPL로 향한 손흥민은 첫 시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각종 대회에서 8골을 넣었지만 분데스리가를 휘젓던 모습만큼은 아니었다. 2016~2017시즌을 앞두고는 이적설에 휘말렸다.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그의 진가를 알아본 볼프스부르크(독일)는 꽤나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누군가 자신을 원한다는 것은 물론 기쁜 일이지만 손흥민이 처한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썩 유쾌하지 않은 일이었다. 손흥민은 고심 끝에 더 큰 물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페널티킥 없이 2골을 몰아치며 EPL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EPL 이달의 선수 상이라는 달콤한 보너스까지 얻었다.

우려를 딛고 연착륙에 성공한 손흥민은 2017~2018시즌 입지 다지기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순조롭다. 지난해 8월 카타르와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을 치르던 중 오른쪽 골절상을 당해 출장은 늦었지만 복귀 후 언제 다쳐나는 듯 공격 포인트를 쏟아냈다.

4경기 연속골을 비롯해 9골을 터뜨리며 순항 중이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46) 토트넘 감독은 “우리 팀 모두가 손흥민을 사랑한다. 플레이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 또한 그렇다”고 칭찬했다.

### △ 브라질에서 눈물, 러시아에서는?

시즌을 마치면 ‘꿈의 무대’인 월드컵으로 향한다. 러시아월드컵은 6월14일부터 7월15일까지 열린다.

손흥민에게는 두 번째 도전이다. 첫 번째는 아시안게임으로 가득했다.

2014 브라질월드컵에 나섰던 손흥민

은 골 맛을 보긴 했지만 팀의 추락은 막지 못했다.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0-1로 패해 16강 탈락이 확정된 뒤 눈물을 쏟는 장면은 여전히 축구팬들의 뇌리에 남아있다.

한국은 러시아월드컵에서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F조에 속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모두 우리보다 한 수 위의 팀들이다.

일각에서는 1998년 프랑스월드컵 조편성(멕시코·네덜란드·벨기에)을 연상케 할 정도로 백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예년에 비해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손흥민이 해준다면’이라는 심리가 깔려있는 것도 사실이다. 브라질 대회에 비해 기량이 한층 성숙해진 손흥민이 중심을 잡아준다면 1승, 나아가 16강 진출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심론도 손흥민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손흥민은 두 번째 도전을 잔뜩 버리고 있다. 그는 “난 아직도 브라질의 눈물을 기억한다. 어느 팀이든 우리보다 강팀이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은 둥글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2014년 브라질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우리 선수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인과 축구팬들이 하나가 돼서 후회하지 않는 월드컵을 만들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 △ 어쩌면 더 중요한 아시안게임

러시아월드컵이 끝나도 실 틈은 많지 않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8월18일~9월2일)이 버티고 있다.

축구라는 종목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아시안게임은 그리 큰 비중을 갖는 대회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무대다.

금메달을 따면 선수 생활의 최대 걸림돌인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손흥민에게는 월드컵보다도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동안 손흥민이 병역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때는 대한축구협회와 손흥민의 발탁을 추진했지만 당시 소속팀이었던 바이엘 레버쿠젠(독일)이 차출을 거부했다.

아시안게임은 국제축구연맹(IFFA)이 승인한 A매치가 아니기에 차출의 강제성이 없다.

동료들이 28년 만의 금메달로 환호할 때 손흥민은 다음을 기억해야 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토트넘의 동의를 얻어 와일드카드로 합류했지만 팀이 8강에서 도전을 멈췄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은 손흥민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얻지 못하면 2년 뒤 도쿄올림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메달권 진입 확률도 아시안 게임에 비해 떨어질 뿐 아니라, 그 전에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만일 자카르타에서 금메달 사냥에 실패하면 손흥민은 축구 선수로서의 최정성기를 군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

금메달로 흥겨운 신분이 되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이미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정상급 선수로 우뚝 선만큼 몸값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다.

/뉴시스

## 평창동계올림픽대회 D-30 성공 개최 열기 확산 기념행사 다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막을 기념하고 강원도민들의 올림픽 성공 개최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9일 행사 주최 측에 따르면 빙상경기 전 종목이 치러지는 강릉에서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100분간 강릉아트센터 사립당홀에서 D-30 기념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강릉시는 ‘10년의 준비 변화의 시작 동계올림픽 우리가 주인공이다’를 주제로 동계올림픽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성공 개최 결의문 낭독, 오륜 손피켓 퍼포먼스

를 펼쳐 시민들의 성공 개최 의지를 결집시킬 계획이다.

최명희 시장은 차량 2부제, 숙박·음식 가격 안정화, 자원봉사, 친절의식 등을 직접 설명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알파인 스키 경기가 치러지는 정선에서도 이날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D-30 한마음행사를 열어 군민들의 올림픽 참여 열기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부르자 아리랑 즐기자 올림픽을 주제로 동계올림픽 응원 콘서트, 정선아리랑과 올림픽의 모습을 레이저 쇼로 보여주는 드로잉

레이저쇼, 응원 퍼포먼스 정선군 합창단 아페라 공연, 정선아리랑대합창 등을 펼친다.

춘천에서는 오는 13일 오후 4~8시 소양강스카이워크 일원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D-30 춘천불꽃축제를 열어 올림픽의 열기와 감동을 먼저 맛보기로 했다.

불꽃축제는 올림픽의 열정과 감동이 주는 울림을 4막의 공연으로 보여준다. 관람 장소는 신사우동 두미르아파트 뒤, 소양2교, 소양강스카이워크, 평화공원 수변 등이다. 불꽃은 춘천대합기념평화공원 앞 호수에서 발사된다.

/뉴시스

## 포항 스틸러스, 호주 출신 미드필더 코너 채프만 영입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포항 스틸러스가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썬 코너 채프만(호주)을 영입, 2018시즌 외국

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다.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수비수 지원인 채프만은 호주 연령별 대표팀(U-17, 20, 23)을 두루 거쳤다. 호주 A리그 뉴캐슬 제츠와 멜버른 시티에서 활약했다.

2017년 인천에서 K리그에 데뷔해 27경기에 출전하며 K리그에 적응한 채프만은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수비수 뿐 아니라 왼쪽 풀백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포항은 수비력이 뛰어나고 빌드업에도 장점이 있는 채프만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채프만은 “호주에서도 명문구단으로 평판이 높은 포항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포항이 올 시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플레이를 선보여 사커루(호주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뉴시스

## ‘1987’ 박스오피스 정상… 13일만에 ‘신과 함께’ 제쳐

영화 ‘1987’(감독 장준환)이 개봉 13일 만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1987’은 전날 1010개관에서 4540회 상영, 17만9845명을 끌어모아 ‘신과 함께-죄와 벌’(17만4243명)을 한 계단 끌어내리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누적 426만명). 이날 매출액은 13억6000만원(누적 342억원), 매출액 점유율은 34.6%였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1987’은 높은 완성도로 호평받으면서도 일주일 앞서 관객을 만난 ‘신과 함께-죄와 벌’(이하 ‘신과 함께’)의 흥행세에 밀려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는 데 그쳤다. 이후 ‘신과 함께’가 1100만 관객을 넘어서고 흥행 동력이 떨어지자 박스오피스 선두에 서는 데 성공했다.

‘1987’은 9일 오전 7시30분 현재 예매 관객수 4만2593명(예매 점유율 24.8%)으로 예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1987’은 1987년 6월 항쟁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 ‘1987’의 한 장면.

대학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 도중 고문 당해 죽자 정부는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이 일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지구를 지켜라(2008)”,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2013)’의 장준환 감독이 연출했고, 하정우·김윤석·유해진·김

태리·박희순·이희준·여진구·설경구·강동원 등이 출연했다. 한편 이밖에 박스오피스 순위는 3위 ‘주만지: 새로운 세계’(8만16293명, 누적 98만명), 4위 ‘페르다난드’(2만5691명, 38만명), 5위 ‘위대한 소년’(2만1187명, 109만명) 순이었다.

/뉴시스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